

<p>이 자료는 2025년 12월 10일 부터</p>	<h1 style="color: blue;">보도자료</h1>  <p>시흥상공회의소</p>	담 당 과	기업지원팀
		담 당 자	팀장 민지성
		전화번호	031)501-5700
<p>본 보도 자료는 시흥상공회의소 인터넷(http://shiheungcci.korcham.net)에 수록되어 있습니다.</p>			

제14회 다문화가정 후원금 전달 및 모국 방문 환송식 개최

시흥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5일(금) 15시, 시흥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최승옥 부회장(기보스틸(주) 회장), 이흥해 부회장((주)울촌 대표이사), 박애숙 상임의원(금양화학(주) 대표이사),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 천숙향 시흥시 1%복지재단 사무국장, 그리고 모국 방문 가정으로 선정된 결혼이주여성 2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다문화가정 후원금 전달 및 모국 방문 환송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5년 9월 29일 개최된 ‘다문화가정돕기 상공인 친선골프대회’와 신한카드 다문화사랑카드 적립금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리로, 총 65,449,222원의 후원금이 마련되었다. 이 가운데 시흥상공회의소 후원금 58,863,000원과 신한카드 다문화사랑카드 적립금 6,586,222원이 합산되어 조성되었으며, 후원금은 시흥상공회의소 성낙헌 회장이 천숙향 시흥시 1%복지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부터 이어진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후원 사업이 올해로 14년을 맞았으며, 그동안 지역 기업인과 상공인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누적 7억 원이 넘는 후원이 이어져 왔다고 밝히고, 이번 모국 방문이 결혼이주여성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나 시흥시가족센터장은 “매년 다문화가정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시흥상공회의소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국 방문이 각 가정에 뜻깊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하얼빈 방문 대상자인 유연화 씨는 감사의 편지를 통해 “부친의 별세와 건

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두고도 경제적 여건으로 쉽게 고향을 찾지 못했지만, 이번 모국 방문 지원이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간직될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14회 환송식을 통해 총 7개국 21가정 79명이 모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몽골, 일본, 캄보디아 등이다.

한편, 시흥상공회의소는 2012년부터 다문화가정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며, 총 16개국 210가정 716명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역사문화탐방과 진로체험 388명, 코로나19 기간 중 3년간 시흥화폐(시루) 지원 360가정 등 다양한 방식의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흥상공회의소는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